



## 슈발리에, 그의 시대에..

**슈발리에 신부님의 삶** 11월은 전통적으로 가톨릭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는 달입니다. 줄 슈발리에 신부님은 한 편지에, "어머니는 1876년 7월 19일에 86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매우 사랑했지만, 특히 편지에서 어머니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쓰셨습니다. (L 18730210). 슈발리에 신부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여름, 휴가를 위해 리솔리외에 계셨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1848년 8월 20일에 선종하셨습니다. 슈발리에 신부님은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계속 쓸 힘이 없습니다. 내 감정은 당신에게서 숨기려 했던 진실을 배반합니다....! 죽음은... 도착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슈발리에)는 무엇보다도 그의 아버지가 자신이 저버렸던 하느님께로 돌아가 마침내 주님의 평화 속에서 눈을 감는 것을 보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MR 36 "Plan sur le Cœur de Marie pour le mois de mai"-Manuscrits sur la Très Sainte Vierge, pp. 44-45). 그의 아버지의 회심은 신부님의 삶에서 강력한 은총의 순간이었습니다.

**슈발리에 신부님의 말씀** 슈발리에 신부님은 인생의 짧음에 대해 묵상하면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죽음은 빠르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하루는 무섭게 빠르게 지나갑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몇 주가 지나고 또 몇 년이 지나갑니다. 우리의 삶은 가벼운 바람에 금방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습니다... 조심하고 준비합시다... 우리는 단 한 번만 죽고 영원한 죽음에 달려 있습니다, 잘 죽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어떻게 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M II 318-321).

잘 죽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초대에 열린 마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루카 14:23). "아무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초대받았습니다... 내게로 오십시오, 여러분은 내 식탁에 모일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거룩하다면 더 거룩해질 것이고, 병들었다면 치유될 것이며, 약하다면 강해질 것이고, 차갑다면 따뜻함을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면 나의 사랑에 응답하고 진정으로 나아지고자 하는 열망을 갖는 한 회심하게 될 것입니다."(M II 27).

(From Fifteen Days of Prayer with Jules Chevalier, Fr. André MAYOR, MSC, Ninth Day)

## 오늘날을 위한 슈발리에..

"많은 남성과 여성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데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자선을 베푸는 것 이상의 일을 합니다"

그들은 경청하고, 참여하고, 어려운 상황과 그 원인을 이해하고 대처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물질적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 필요도 고려하며, 개인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슈발리에, MSC

선교 열정을 마음에 품은 이

1824-2024

## 오늘 날을 위한 슈발리에 ...

그들의 증언이 점점 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이 많은 자원봉사자들에게 대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2023년 세계 가난한 이들의 날을 위한 교황 프란치스코 메시지, 5번)

"이웃 구원을 위한 우리의 열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줄 슈발리에, M II 350).

희망의 천막을 세울 때 우리는 줄 슈발리에 신부님의 정신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성체성사를 통해 자신을 내어주신 이래로 그분께서는 고통받는 이들, 병든 이들, 죽어가는 이들 곁에 얼마나 많이 계셨습니까?"(줄 슈발리에, M II 33).

성체성사의 변화시키는 힘이 어떻게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 흘러가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이 집에서 모든 사람은 자비의 빛을 체험할 권리가 있으며, 그 누구도 그 빛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2023년 세계 가난한 이들의 날을 위한 프란치스코 교황 메시지, 10번).



## 이달의 기도

우리 힘의 원천이신 아버지 하느님,  
줄 슈발리에 신부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모든 사람을 영원한 행복으로,  
하늘 나라의 영원한 잔치에 이끌기 위해서  
당신 아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데 헌신하는  
많은 남성과 여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을 바친 희생은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도록 진정으로 영감을 줍니다.  
아버지,  
우리는 또한 선종한 슈발리에 가족의 사제, 수사, 수녀, 평신도 등  
과거의 모든 선교사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천국에서 당신과 함께 평화의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또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여전히 순례 중에 있는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